

한외연 발제(2013. 4. 13)

晉書 東夷列傳

저자: 당나라 채상 방현령 등에 의한 官纂

- 남북조시대까지는 역사서가 개인의 저술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남아 있었던 반면 당대 이후 사관에 의한 편찬이 시작
- 다수의 사관에 의해 기계적으로 편찬되나보니 前史의 기술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관찬이다보니 당시 기록을 이용하는 측면도 존재

대상: 晉왕조(서진 265-316, 동진 317-420)의 정사이자 5호 16국에 관한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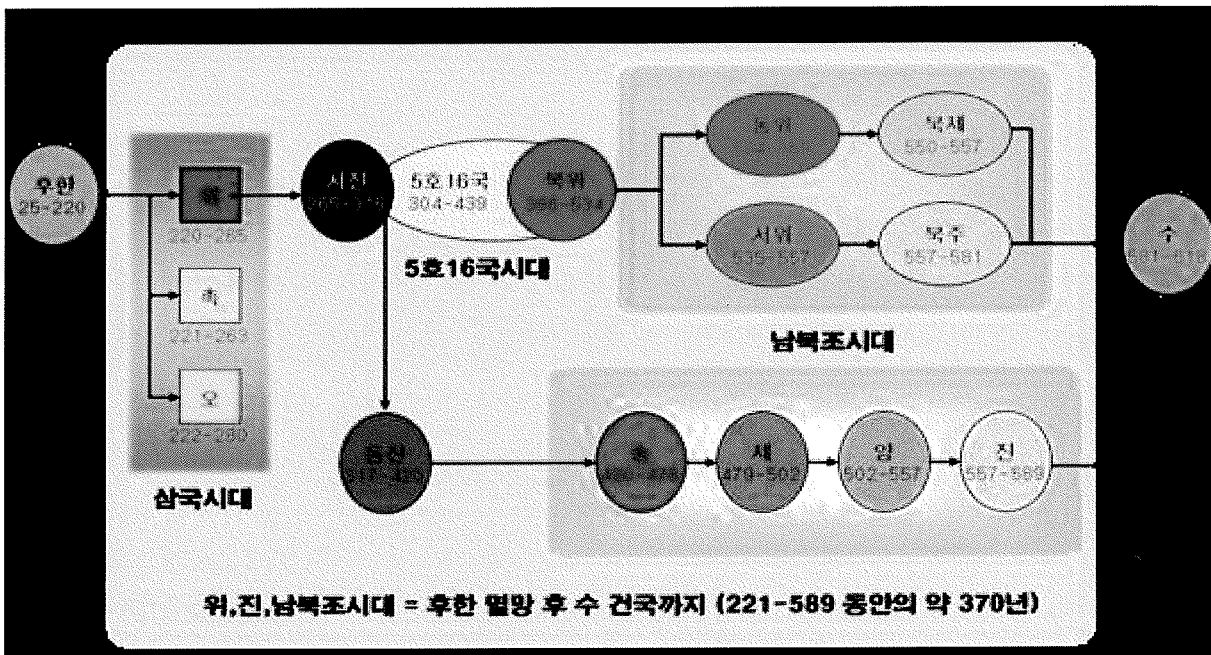
- 265년에 사마염(司馬炎, 236~290)이 위나라 원제(元帝)를 폐위시키고 제위에 올라 武帝가 되었으며 280년에는 東吳를 멸망시키고 삼국(三國)을 일시 통일
- 316년에 흉노의 의해 멸망되었으며 이후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기까지 136년 동안 5호 16국 시대
- 317년에 황실의 후예인 사마예(司馬睿, 276~323)가 지금의 난징에서 東晉을 재건

특징:

- 편제: 전 130권 / 제기(帝紀) 10권, 지(志) 20권, 열전(列傳) 70권, 재기(載記) 30권 / 재기라는 형식이 처음 등장, 동진시대가 분열의 시대라 이에 관한 역사는 전대와는 다르게 재기를 두어 5호 16국의 역사를 서술
- 644년 편찬 / 남북조시대 직전 왕조의 역사이나 남북조 정사 중에서 가장 나중에 편찬
- * 宋書, 南齊書, 魏書는 남북조시대에 나머지 梁書, 周書, 隋書, 南史, 北史, 晉書 등은 당나라 시대에 편찬 / 기타 陳書, 北齊書도 있으나 외국전 결여
- 당대 화이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외국전의 체제와 형식이 四夷傳으로 체계화 되었음
- 동이전은 삼국지 동이전을 대개 그대로 베낀 것이며 진대의 기사는 단지 몇 가지가 말미에 추가되었을 따름
- 전사인 후한서, 삼국지는 물론 남북조시대의 다른 정사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高句麗傳이 부재한 것도 특이

남북조시대 정사와 동이열전

- 남조의 정사인 宋書, 南齊書가 외국전을 夷蠻傳으로 통칭하는 것은 남북조시대 화이 구별이 강조되던 사조의 반영
- 같은 남조의 역사이지만 梁書는 唐代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諸夷傳으로 체계화되었으며 대부분 삼국지를 전제
- 북조의 정사인 魏書, 北史 등은 외국의 열전에 대해 夷·蠻 등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열전으로만 호칭
- 북위의 정사인 魏書의 고구려전은 분량이 다른 정사보다 많으며 내용도 자세 / 삼국시대 이래 중국과의 관계, 특히 장수왕때의 관계가 많은 분량, 초빙과 책봉의 기사가 태반이며, 주몽 건국설화는 광개토태왕비문의 내용과 유사



夫餘國

지리

- 玄菟의 북쪽 천여리에 위치, 남쪽은 鮮卑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弱水가 있음
- 영토는 사방 이천리이고 호수는 8만
- * 후한서, 삼국지에서는 서쪽으로 선비와 접한 것으로 되어 있음. 고구려의 압력에 밀려 서북쪽으로 중심 이동을 했을 가능성

제도

- 법률은 살인을 한 자는 사형체 처하고 도둑질에 대해서는 12배를 갚도록 되어 있으며 음란한 것을 하면 모두 사형

풍속

- 순장의 풍속
- 상을 치르는 동안 남녀가 모두 흰 옷을 입는데 부인은 베로 만든 면의를 착용하며 옥으로 만든 패물을 차지 않음

산물

- 좋은 말과 담비, 삿갓이, 좋은 구슬이 산출

대외관계

- 매우 부강하여 선대로부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일이 없음
- 武帝 때에 자주 와서 조공을 바침
- 285년 慕容廆의 습격을 받아 패하여 부여왕 依慮는 자살하고 자녀들은 沃沮로 달아나 목숨을 보전, 依羅가 復國을 도모하여 護東夷校尉 何龕에게 원조를 요청하자 이를 지원하여 나라를 회복
- 황제가 慕容廆의 부여사람 거래를 금지
- * 346년 慕容皝의 침입으로 北夫餘 멸망, 위의 기사에 나오는 3세기 모용씨의 침입을 받아 동쪽으로 이동하였던 부여족이 건국한 東夫餘가 5세기까지 존속하다가 文咨王때 고구려에 흡수
- * 서진이 적극적으로 부여의 복국을 지원한 것은 모용부의 영역 확장에 불안을 느낀 견제책의 일환
- * 고구려 고국원왕도 342년 전연의 침입으로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고 왕모와 왕비를 포함한 5만명의 주민이 포로가 되는 대참패

馬韓

지리

- 辰韓은 帶方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음
- * 韓 전체라면 몰라도 진한에 대해서는 명백히 오류

제도

- 마한은 모두 56개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(凡有小國五十六所), 큰 나라는 1만호,

작은 나라는 수천가

- 國邑에는 각각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게 하는데 그를 天君이라고 부름

* <삼국사기에서는 3세기경 고구려·백제·신라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반도 남쪽을 상당히 분립적인 상태로 기술>

풍습

- 움집 기거

- 남자들은 머리를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내 놓으며 베로 만든 도포를 입고 짚신을 신음

대외관계

- 武帝 太康 원년(280년)과 2년 그들의 임금인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조공, 太康 7년, 8년, 10년에도 자주 음

- 太熙 원년(290)에 다시 사절이 왔으며 이듬해에 또 內附하기를 청함

* 마한의 조공관계 기사가 사실은 백제의 대중국 관계라는 설

辰韓

지리

-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있음

- 스스로 말하기를 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로써 秦의 苦役을 피하여 韓에 들어왔는데 韓이 동쪽을 분할하여 살게 함

- 城柵을 세웠으며 언어가 秦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秦韓이라고도 함

제도

- 처음에는 6국이 있었으나 점점 나뉘어 12국이 됨

- 弁韓이 있는데 그 역시 12국으로 도합 4-5만호이며 모두 辰韓에 속함

- 馬韓 사람을 임금으로 삼아 대대로 계승

풍습

- 풍속은 마한과 비슷

- 아이가 출생하면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함

- 춤추기를 좋아하며 비파 연주를 잘 함

산물

- 양잠이 성행하고 비단을 잘 짜며 소도 부리고 말도 탐

대외관계

- 武帝 太康 원년(280년)에 왕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으며 太康 2년, 7년
에도 다시 조공함

肅愼氏: 挹婁